

환멸과 기억, 혹은 진실을 향한 새로운 출발

박상우, 최수철, 김훈의 최근작을 읽고

류보선
문학평론가

한때 한국소설에서 진실을 만나고 싶다는 것 자체가 슬픈 염원이었던 적이 있었다. '의사진정성'이 진정성을 내몰고 주인 행세를 하던 그 한때란 90년대 초반이었다. 90년대의 문학은 교활한 현실과 맞서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활한 현실을 부정하려 한, 당장 올바르게 못했지만 올바르게 향해 끊임없이 자기부정을 행하던 그 정신을 시대착오적이라 규정했다. 인간의 모든 가치를 교환가치로 환원해버리는 거대한 물신(物神)과 맞서던 정신,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조장하는 정신적 동물왕국의 시대를 넘어서고자 했던 유토피아의 지향은 그렇게 90년대 문학의 표면에서 사라졌다.

90년대 초 한국문학 전반은 한국사회의 구석구석을 아우르기는커녕 현실의 한 단면도 설명할 수 없는 담론들이 횡행했고, 외국에서 유행하는 담론들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몇몇 담론들이 화려한 각광을 받는 병리현상에 시달렸다. 저 먼 곳에서 '이성의 죽음'이 격정스레 진단되면, 이곳에서는 '이성의 죽음'을 기쁘게 선언했다. 그 결과 진실은 박물관의 진열장으로 밀려들어갔다.

문학의 '진정성' 회생

그러나 이제 한국소설에서 진실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은 굳이 슬픈 염원만은 아닌 듯하다. 마치 철옹성처럼 느껴지던 '의사진정성'의 장벽을 뚫고 문학적 진정성이 다시 회생하고 있는 것이다. 《독산동 천사의 시》(박상우), 《내 정신의 그림》(최수철), 《빗살무늬 토기의 추억》(김훈)은 그 구체적인 종착로서 손색이 없다. 아니, 이들 소설(집)로 인하여 문학적 진실의 회생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이들 소설(집)에는 교활한 현실과 맞서 진정한 가치를 찾으려는 치열한 정신이 행간 사이사이를 가득 메우고 있다.

박상우의 《독산동 천사의 시》는 지금 이곳을 살아가는 존재들의 황폐하고 어두운 내면풍경을 집중적으로 조망한다. 이 소설 집의 기본적인 정조는 환멸감이다. 이 환멸의 어조는 강렬하며, 작가는 이 환멸을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존재의 일그러진 형상을 냉철하게 그려낸다. 《독산동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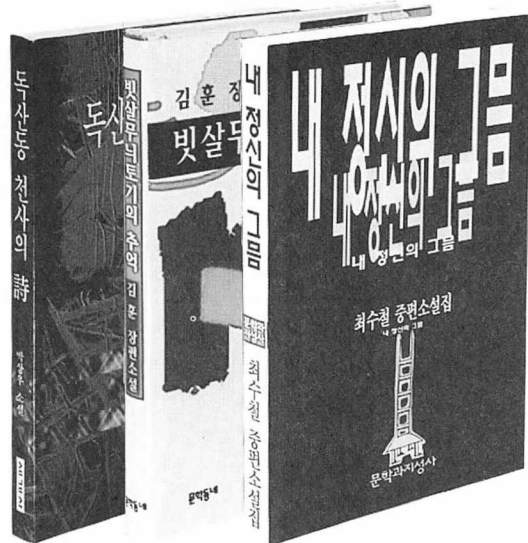
90년대 초반 한국문학은 '이성의 죽음'을 환호했다. 그후로 한국문학은 병리현상에 시달렸다. 이런 가운데 발간된 세권의 소설(집)이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이성이 서서히 죽어가는 현상은 결코 환호할 일이 아니라 인간을 절대절명의 고통으로 몰아갈 뿐임을 이 소설들은 아프게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사의 시》는 환멸의 대상으로 두 가지를 설정한다. 하나는 환상, 꿈, 유토피아적 열망을 인간의 영혼에서 앗아간 교활한 현실이며, 다른 하나는 현실의 교활한 논리에 쉽게 영혼을 내맡긴 인간존재이다.

"정권을 이유로 기피하던 소재가 이제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이유로 거부당하는 시대"라고 작가는 말한다. 그리고 그 시대에서 "꿈은 문자 그대로 지나가는 개도 웃을 소리"가 되었으며 또한 인간들은 너무 일찍 늙어버렸거나 폐잔병으로 살아간다고 말한다. 역사의 진행과정에서도, 그 역사를 살아가는 인간에게도 꿈은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다.

박상우의 소설은 이러한 질은 환멸감 속에서 두 개의 탈출구를 조심스럽게 타진한다. 하나는 사막으로의 질주. 교활한 현실, 그 교활한 현실이 안겨다주는 피로감으로부터 벗어나고픈 열망이리라. 다른 하나는 천사 찾기. 천사란 꿈의 의미있음을 환기시켜 주는 어떤 존재이리라. 비록 한 순간 명멸하고는 스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라도 그것을 기억하겠다는 의지가 이 책에는 강렬하게 숨쉬고 있다. 환상이 사라진 시대에 꿈을 스스로 버린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도피를 꿈꾸거나 천사를 아주 순간적으로만 기억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독산동 천사의 시》에 그려진 우리 시대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불행하게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최수철의 《내 정신의 그림》 역시 꿈이 불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소설들은 현대를 "우리를 바위에 단단히 비끄러내어놓은 뒤 우리를 짐승처럼 마비시키는 "일상이 곧 신"인 시대로 규정한다. 현대에 인간은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불임의 자궁과 텅 빈 고환의 사랑을 반복한다. 최수철은 현대인을 "현실적인 편리함의 이름으로 반으로 잘린 생명체"로 이미지화해 낸다.

잘 알려져 있듯 최수철에게 신체의 현상학은 정신의 현상학이다. 그렇다면 최수철은 광고 효과를 위해서라면 인간의 몸을 반으로 잘라 이미지화할 정도로 비인간적인 질서 속에서 현대인은 살고 있으며, 반쪽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부분적인 삶을 사는 것이 현대인의 존재방식이라고 설정한 셈이다. 이 소설집은 단자화되고 파편화된 현대인의 삶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서이며, 우리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전율할 수밖에 없다. 《내 정신의 그림》에 그려진 현대인의 초상은, 애써 부정하고 싶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이다.

현대인에 대한 보고서

김훈의 《빗살무늬 토기의 추억》 역시 현대인의 존재방식에 대한 냉정한 보고서이다. 이 소설은 현대를, 그리고 현대인의 삶을 문명사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인간의 여러 속성 중 '도구적 인간'이라는 측면에 주목

한다. 그리고 '도구적 인간'의 속성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행한다. 인간은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도구를 개발했지만, 종국적으로 인간이 도구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빗살무늬 토기의 추억》이 행하는 현대에 대한 진단이다. 인간들은 인간 이외의 생명체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이외의 인간들에 대해서도 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 소설은 모든 생명체를 볼모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인간마저도 도구화시키는 거대한 문명사회를 비판하고 넘어서고자 한다.

그러나 이 싸움의 승부는 이미 정해진 것인지도 모른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도도히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을 한 개인이 넘어서고 되돌린다는 것이 어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럼에도 김훈의 소설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 문명사회의 원천인 불과 금속성 장비에 맞서 물을 들이대고 이타적인 사랑을 맞세운다. 그것도 아니면 문명세계와 대비되는 빗살무늬 토기의 시대를 기억한다. 이 승부가 뻔한 싸움을 작가는 독려한다. 관점에 따라서는 이 소설의 작가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쩔 것인가. 이 자잘한 기억들이 모여져 거대한 힘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으며, 《빗살무늬 토기의 추억》은 이것을 충분히 일깨운다.

90년대 초반 한국문학은 '이성의 죽음'을 환호했다. 90년대 문학의 알리바이를 위해서였다. 그후로 한국문학은 병리현상에 시달렸다. 이런 마당에 발간된 세권의 소설집이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이성이 서서히 죽어가는 현상은 결코 환호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절대절명의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 소설들은 아프게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의사진정성의 깊은 늪 속에서 진정성이라는 자그마한 연꽃이 피어올라오기 시작했다. 이 자그마한 연꽃을 어떻게 탐스럽게 키울 것인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문제이다.

《독산동 천사의 시》/ 세계사/A5신/318면/6000원
《내 정신의 그림》/ 문학과지성사/A5신/328면/6500원
《빗살무늬 토기의 추억》/ 문학동네/B6신/212면/6000원